

“선진 금융기관의 거대화 전략”

- 협회 조사부 -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금융기관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화를 모색하려는 추세이다. 이는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에 대응한 자국 시장의 방어와 세계 시장 지배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상이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감독·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및 경영 목표상의 마찰, 시스템상의 이질성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우량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M&A와 대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선진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국내 시장 공략에 대비하여 우량 금융기관간 M&A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인수·합병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씨티코프·트레블러스 합병(자산 : 7천억 달러) 발표 이후, 내이션스뱅크와뱅크아메리카(자산 : 5,700억 달러),뱅크원과 퍼스트 시카고NBD(자산 : 2,300억 달러)가 연이어 합병 발표를 하는 등 거대은행간의 통합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97년말 스위스의 UBS와 SBC(자산 : 6,630억 달러)가 합병하여 유럽 최대

은행을 탄생시켰고, 독일의 도이치뱅크는 최근 프랑스 보험사 AXA와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 등을 상대로 합병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금융산업내의 업종 구분이 점차 약화되면서 최근 산와(三和)은행이 야마이치증권의 한 투신사를, 그리고 GE캐피탈이 도호(東方)생명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금융기관간의 M&A가 거대화 되고있는 주된 배경은 지구촌 단일 시장에서 자국금융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 분리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유럽은 단일통화, 일본은 빅뱅크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M&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유니버설 बैं킹을 추구하는 추세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합병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씨티코프와 트레블러스그룹의 합병도 은행, 신용

〈세계 금융 시장의 발전과 M&A의 주이〉

금융 시 장	왕조 중심시대 -모건 -로스차일드 -워버그 -록펠러	기업 중심시대 -고객이 주도 -정부의 지원	금융시장 중심시대 -본격적인 금융 거래 -금융 중심지 등장		상품/기술중심시대 -거래 방식과 기술의 조화 -신상품개발 급성장 -지역 시장에 쫓김
	M & A		수직결합 일관생산 체제 확보	복합화 사업 다각화	적대적 M&A 시장에서 매매 차익 획득
	1850	1920 1940	1960	1975 1980	1990

카드, 보험에서 뮤추얼펀드 가입 등 모든 금융업에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에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씨티코프는 트레블러스를 통해 자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트레블러스는 씨티코프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상이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시 나타나는 기존의 감독·규제뿐만 아니라 문화 및 경영 목표상의 마찰 등 시스템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합병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우량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M&A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99년초로 예정된 단일통화체제 출범을 앞두고, 미국 은행들의 거대화 전략에 영향을 받아 국경을 초월한 금융기관간 M&A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독일의 도이체 뱅크, 영국의 바클레이스(BCS), 넷웨스트(Nat West) 등이 초대형 유럽은행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중간 규모의 지역은행들간에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와(三和), 도요(東洋), 주오(中央)은행 등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미국의 메릴린치 등 선진국 은행들과 과감한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대형화 추세는 시장지배력 확보 경쟁 차원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구

모가 작은 금융기관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합병을 모색하거나 특정 부문에 특화하는 전략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미국에 대항해 대규모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합병이 이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우량 금융기관간 과감한 흡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던 미국계 금융기관들의 합병은 유럽계와 아시아계 금융기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최소한 국내시장에서만은 비교우위를 잃지 않도록 우량 국내 금융기관간 M&A를 통해 대형화를 꾀하든지, 구조조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시급히 탈바꿈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도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은행, 보험, 증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제는 경제력 집중 문제보다는 수익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장경쟁 원리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 본 자료는 '98년 4월 24일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IMF 경제정보(P. 9~11, 발행인 김중웅)"에서 독자의 참고를 위해 인용한 글임.

기업인합병경영의 화의제도

화의(和議)는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법원의 보조·감독하에 채권자의 양보와 채무자의 계속경영으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부실기업 처리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화의법은 파산법과 함께 '62년 1월 제정되었는데, '84년까지는 전혀 이용이 없다고 '85년에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인가되었고 '89년에는 2건이 접수되었다가 모두 취하된 후 '94년까지는 다시 한 건도 법원에 신청되지 않았다. 그러나 '95년에는 13건, '96년에는 9건, '97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에만 121건이 신청되어 총 322건에 달하고 있다.

파산의 원인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리고 정리위원을 선임한다. 정리위원은 화의조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화의개시 결정,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및 채권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가결하게 되면 법원은 화의를 인가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화의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교섭하고 합의하는 그 절차의 성격상 채권액과 채권자 수가 적은 기업, 채권액이 많아도 채권자 수가 적거나 동종 채권자여서 정리하기 쉬운 기업, 담보권자가 협력하는 기업 등에 적합하다.

화의제도는 그 절차가 신속하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주주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화의절차기간이 법정관리보다 단기라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화의개시 공시에 의해 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일반적 채권금액 등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화의조건 이행의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과 자금지원의 명시 규정이 없어 협력업체의 지원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화의제도는, 채권자는 파산에 비하여 유리하게 변제를 받고 채무자는 파산을 모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